



고려대학교 성적경고자 관리 지원 시스템

2016학년도 교육부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누적된 성적 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교의 경우, 성적경고자는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여 명이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된다. 이에 고려대학교에서는 해마다 성적경고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원인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적경고자를 위한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 성 희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자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적경고자는 학습기술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정서·동기)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수업 출석률이 낮고 교내에서 활동성이 낮아 적극적인 학교생활 및 학업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성적경고자들의 학업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성적경고에 대한 학칙을 살펴보면, 해당 학기의 평균평점이 1.75점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이 된다. 제적이 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재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과(부)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는 각종 대학 평가 및 국고 사업에서 성적경고 학생에 대한 학습의 질 관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2010년부터 성적경고자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적경고자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연구를 기반으로 학업코칭 프로그램 모형을 설정하여 고려대생을 위한 KU Profile 학습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6개월 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학업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온라인 상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KU Profile 추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그리고 단과대별 학업코칭을 통해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학업코칭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센터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전문가, 학생상담센터의 심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KU Profile 분석 결과와 주 호소문제를 기반으로 학습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상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칭에 대한 방어벽을 낮추고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학업코칭을 제공하고 있으며, 1:1 정기코칭, 단회기 코칭 등 유형별로 제공되고 있다. 유학생의 증가로 성적경고를 받는 유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어와 중국어로 KU Profile을 번안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원어 코칭(영어, 중국어)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성적경고 대학생 관련 연구 동향 및 성적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구기반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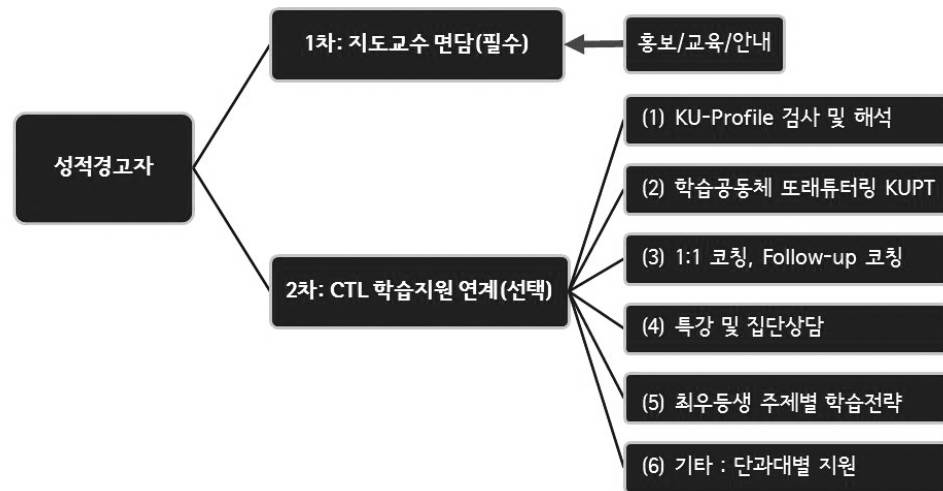
성적경고자 지원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본교에서 성적경고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제적 위기 대상자로서 1차적으로 지도교수 면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학과에서는 지도교수와 가정으로 학생의 성적을 안내하고 있으며, 성적표 발송 시 본원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학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성적경고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을 면담하고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지도교수에게 학생 상담 기법을 제공하고, 본원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성적경고생을 위한 지도를 돕고 있다.

성적경고생이 대학교육개발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면담과 KU-Profile 검사 결과를 통해 문제의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계



한다.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습공동체 포레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전공 기초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학습전략 및 학습동기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단되면 1:1학업코칭, 집단상담 및 단과대별 최우등생 학습전략 동영상 시리즈를 제공하여 학습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려대학교 성적경고자를 위한 학습지원체계〉



학습공동체 포레 튜터링



단과대별 최우등생 학습전략 동영상

이처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은 “창의”, “소통”, “협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교수와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도적인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 고려대학교 교육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각 프로그램들은 사전-사후 평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유학생 및 학사경고생부터 최우등생까지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교 대학교육개발원은 교수와 학생 간에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에서의 참교육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